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보도자료

내용문의	박수범 연구위원 ☎ 02-3156-7043 김애라 연구위원 ☎ 02-3156-7131
행사문의	성민정 연구기획센터장 ☎ 02-3156-7060
배포담당	황애리 언론담당 ☎ 02-3156-7296
배포일시	2026년 11월 23일(월) 오전
보도시기	2026년 11월 23일(월) 오후 3시부터

※ 매수 : 총 5쪽(본문 4쪽, 붙임 1쪽 포함)

AI 시대의 새로운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성평등정책의 해법을 찾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성평등가족부, 「제147차 양성평등정책포럼」 공동 개최

AI 활용 격차와 알고리즘 편향, 디지털 성폭력 등 새로운 정책과제 논의
여성집중 직종의 AI 영향 분석...직무전환·고용유지·훈련 지원방안 제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종숙)은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와 공동으로 11월 24일(화) 오후 3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층 국제회의장에서 “AI 대전환 시대, 성평등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제147차 KWDI 양성평등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AI) 기술이 노동시장뿐 아니라 행정·복지·교육·돌봄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AI 활용 기회의 차이와 알고리즘의 성별 편향, 생성형 AI를 악용한 젠더폭력 등 새롭게 부각되는 문제를 짚고, AI 활용으로 인한 여성의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논의한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AI 대전환이 여성의 새로운 기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술 변화에 따른 고용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차별·폭력의 위험에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며,

○ “성평등가족부는 여성의 AI·디지털 역량 강화와 미래 유망 분야 진출을 지원하고, AI 기술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과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정책과제를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은 “기술의 발전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같은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 “AI 정책과 성평등정책을 연계하고, AI의 설계와 개발,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 성평등의 관점을 반영해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이번 포럼은 본원 연구진 2인의 주제발표에 이어 정부부처, 학계·현장·연구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 김애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AI 전환과 성평등 정책의 과제: 기회·권리·안전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 김애라 연구위원은 “성평등정책에 AI를 도입하는 목적은 기술 활용 자체가 아니라 정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있는 만큼, AI 전환의 성과를 평가할 때 누가 그 혜택을 누리는지, AI 판단으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아울러 “젠더폭력 위험이 큰 AI 서비스와 플랫폼에 대해서는 위험평가와 예방 조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 이와 관련하여 주요 정책과제로 ▲ 공공부문 성평등정책 관련 AI 도입 시 필요성 검증과 성별 등 집단 간 영향평가, 사람에 의한 재검토 및 이의제기 경로 보장 ▲ 위기청소년 예측 결과에 대한

사람의 최종 판단과 정보 열람·삭제 권리 보장 ▲ 다문화 가족 상담에서 AI의 보조적 활용, 전문 통번역 검토 및 재검토 요구권 보장 ▲ 여성의 직무전환을 위한 교육기간 내 소득·돌봄 지원과 AI 업무 감시·평가 도입 시 사전 설명 및 협의 참여 통로 보장 ▲ 돌봄 분야의 대면 돌봄 요구권과 종사자 평가 참여 보장 ▲ 젠더 폭력 예방을 위한 플랫폼의 예방 의무 및 아동 대상 AI 서비스의 안전 설계 기준 마련 등을 제시한다.

○ 박수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AI 기술발전에 따른 여성고용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 박수범 연구위원은 “직업별 AI 노출도와 직업이 분포한 산업의 도입률, 여성고용 규모를 반영한 AI 취약성 지수(AIRisk)*를 분석한 결과,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이 100.0*으로 가장 높았으며, 보건 전문가 및 관련직(58.9), 회계·경리·통계 사무직(30.5)이 뒤를 이었다.” 라고 설명하며, “AI 노출도가 높은 직종을 일자리 감소 위험으로 단정하기보다, 실제 도입에 따른 업무 변화와 고용·임금·근로조건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라고 강조한다.

※ 생성형 AI 노출 직종 비율: 여성집중 직종 29%, 남성집중 직종 16%(ILO, 2026, 84개국 고용자료 분석)

※ 여성고용 규모 기준 AIRisk 지수: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100.0, 보건 전문가 및 관련직 58.9, 회계·경리·통계 사무직 30.5

*여성고용 취약성 지수(100점 만점)는 가장 취약성이 높은 직업을 100으로 할 경우 다른 차순위 직업들의 취약성이 100점 대비 몇 점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수임. 즉, 금융 사무직 72.5점은 교육전문가 및 관련직(100점) 대비 72.5%의 취약성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이를 바탕으로 ▲ 정책적 우선순위 대상의 직업 선별 ▲ 현장진단·직업훈련·고용서비스·기업 지원으로 연계된 여성고용 모니터링 ▲ 여성고용의 규모와 비중, 실제 AI 도입과 업무 변화에 따른 지원 대상과 내용 조정 등을 제안한다.

○ 주제발표 후에는 최인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진행으로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정남 KAIST AI미래학과

전임교수, 윤정화 성평등가족부 경제활동촉진과장, 이현경 정보통신정책연구원 AI사회정책그룹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AI 전환에 따른 성평등정책의 주요 과제와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붙임 1. 행사 개요.
2. 양성평등정책포럼 소개. 끝.

붙임 1. 행사 개요

□ 행사명 : 제147차 KWDI 양성평등정책포럼
□ 주제 : AI 대전환 시대, 성평등정책의 방향
□ 일시 : 2026년 11월 24일(화) 15:00-17:00
□ 장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층 국제회의장
□ 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성평등가족부 / 주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프로그램

시간	내용	
15:00-15:10		**사회: 성민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획센터장)
	개회사	**원민경**(성평등가족부 장관) **김종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15:10-15:50	**발표**	**(발표 1) AI 전환과 성평등정책의 과제: 기회·권리·안전을 중심으로** **김애라**(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2) AI 기술발전에 따른 여성고용정책 방향** **박수범**(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5:50-16:00	**휴식**	
16:00-16:40		**좌장: 최인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김유빈**(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정남**(KAIST AI미래학과 전임교수) **윤정화**(성평등가족부 경제활동촉진과장) **이현경**(정보통신정책연구원 AI사회정책그룹장)
16:40-17:0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본 행사는 ESG 경영 가치 확산을 위해 종이 없는(paperless) 행사로 진행되며, 행사자료는 당일 현장에서 QR코드를 통해 디지털 파일로 제공됨.

붙임 2. 양성평등정책포럼 소개

□ 양성평등정책포럼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성평등·가족정책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정부, 국회, 학계 등 다양한 정책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실질적 논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실용적이고 생산적인 정책과제 발굴에 기여하고자 2002년부터 연 4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개최해 온 기관 대표행사임.

□ 2026년 양성평등정책포럼 개최 현황

차수	주제	개최일
146	성평등과 지속 가능한 미래: 투명하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위한 정책 과제	2026. 11. 06.
145	지역 성평등 거버넌스의 재설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성평등 추진체계의 방향과 과제	2026. 09. 29
144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성평등 인구정책의 모색	2026. 07. 15